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이승엽 12경기만에 홈런포

요코하마전 4회 3점포…시즌 37호

24일 저녁 요코하마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경기에서 4회초 타석에 들어선 이승엽이 3점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침묵하던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포가 12경기 만에 요코하마에서 터졌다.

이승엽은 24일 요코하마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방문경기에서 0-3으로 끌려가던 4회 무사 1, 3루의 동점 찬스에서 상대 좌완 선발 나스노 다쿠미의 커브를 걷어 올려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동점 3점포를 작렬시켰다. 시즌 37호로 지난 10일 메이지 진구구장서 벌어진 야쿠르트전 이후 14일, 12경기 만에 나온 귀중한 홈런.

특히 3연승을 달리던 팀이 밀리던 상황에서 나온 동점포라 더욱 값졌다.

이승엽은 지난 4월 21일 한신전에서 시즌 5호 홈런을 터뜨린 이후 5월5일 6호 대포를 쏘아 올릴 때까지 11경기 동안 홈런 행진을 멈춘 적이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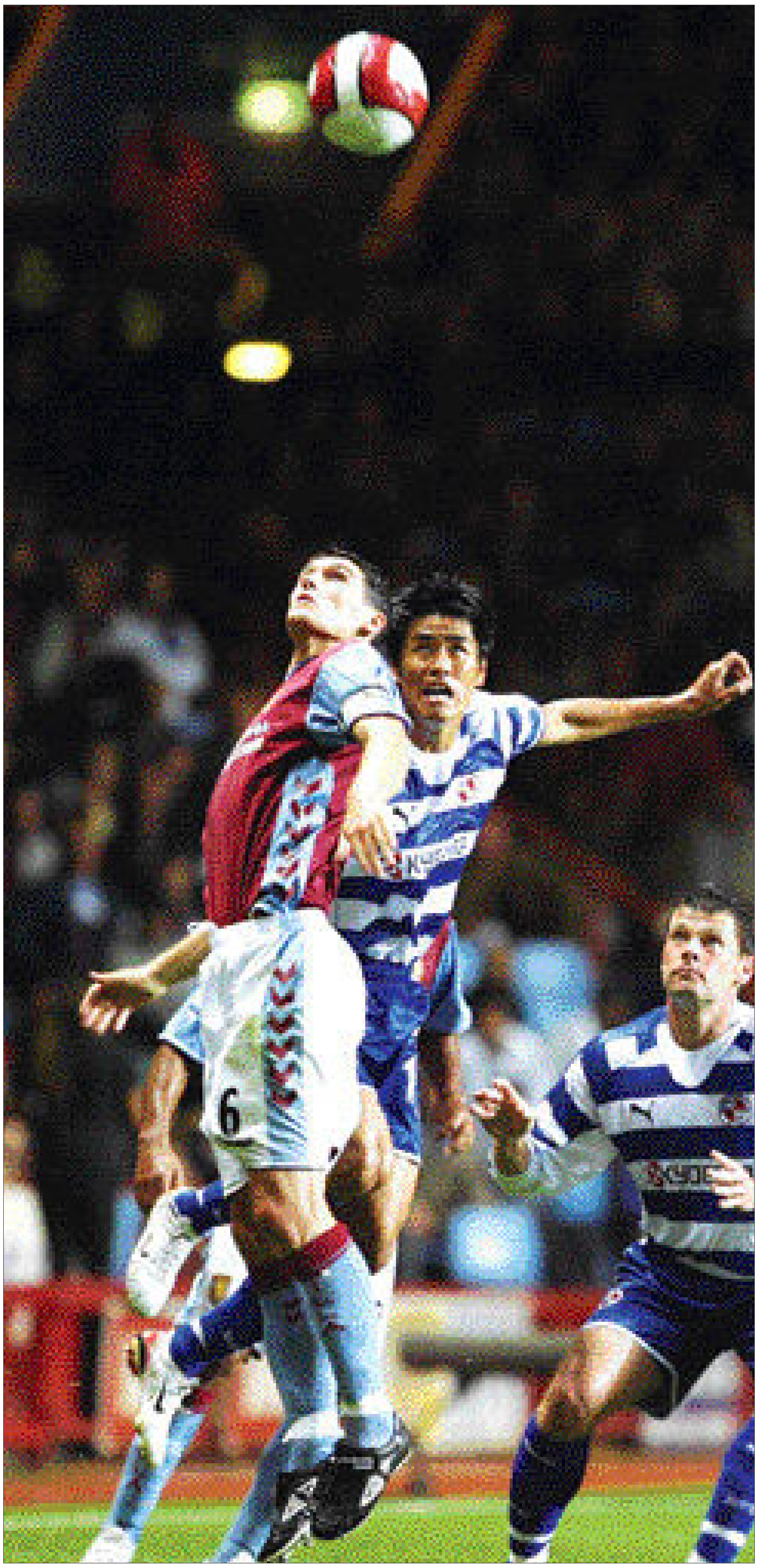
추신수 동점 3루타

한국인 메이저리그 타자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대타로 나서 짜릿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천금 같은 동점 3루타를 때렸다.

좌타자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간) 카우푸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원정경기에서 상대 선발로 좌완 호르헤 데로사가 등판하면서 선발 명단에서 빠졌지만 12-13으로 뒤진 9회 2사 2루에서 프랭클린 구티에레스 대타로 나서 우익선상으로 빠지는 통쾌한 1타점짜리 3루타를 터뜨렸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동점 3루타를 앞세워 결국 연장 10회 접전 끝에 15-13으로 이기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추신수는 이날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은 0.275가 됐다.


레딩 FC의 설기현이 24일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 경기서 상대 미드필더인 가레스 배리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설기현 '탁월한 플레이'

아스톤 빌라전 도움 2호…최고 평점 8

'프리미어리거 3호' 설기현(27·레딩 FC)이 두 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설기현은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빌라파크에서 열린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와 원정 경기에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전반 4분 케빈 도일의 선제골을 이끌어내는 크로스를 올렸다.

레딩은 그러나 전반 33분 수비수 이브라힘 송코가 퇴장당하면서 후안 파블로 앙헬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고 후반 16분 가레스 배리에게 역전골을 허용해 1-2로 패했다. 레딩은 1승1패가 됐다.

지난 19일 미들즈브러와 개막전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설기현은 첫 원정 경기에서 활발한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레딩의 공격을 주도했고 처음 풀타임을 소화했다.

설기현은 전반 4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지역 오른쪽에 있던 도일이 방향을 바꾸는 헤딩슛으로 골문 왼쪽 구석을 꿰뚫었다. 설기현은 시즌 두 번째 도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곧바로 설기현의 어시스트를 인정했다.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선 설기현은 전반 18분 왼쪽에서 휘어지는 코너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으나 아스톤 빌라 골키퍼 토마스 쇠렌센이 선방했다.

설기현은 후반 12분과 14분 잇따라 중거리슛으로 동점골을 노렸지만 수비와 골키퍼 방어에 막혔다.

한편 설기현은 '탁월한 플레이(excellent)'라는 평가와 함께 양팀 최고 평점을 받았다.

잉글랜드 축구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24일 아스톤 빌라와 레딩의 경기 직후 오른쪽 날개로 나온 설기현에게 평점 8을 줬다.

박지성 '아까운 발리슛'

찰튼전 후반 골 포스트 맞혀…평점 6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골대의 저주'에 시즌 첫 골을 놓쳤다.

박지성은 24일 2006-200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차전 찰튼 어슬레틱과 원정경기에 선발출전해 후반 13분 멋진 발리킥을 시도했지만 골 포스트를 맞췄다.

맨유는 후반 4분 수비 실책을 틈탄 대런 플래처의 결승골과 후반 35분 루이 사아의 추가골, 종료 직전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쐐기골로 3-0 완승을 거뒀고 두 경기 8골의 가공할 화력으로 2연승했다.

박지성은 좌우 측면을 오가는 활발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플래처의 결승골에 디딤돌을 놓는 크로스를 연결하는 등 승리에 힘을 보탠 뒤 후반 30분 마이클 캐릭과 교체 아웃됐다. 맨유는 첫 골이 터지기 전 골대만 세 차례 맞췄을 만큼 지독한 골대의 불운에 시달렸다.

웨인 루니와 폴 스콜스가 출전 정지를 당한 맨유는 사아를 원톱으로 세운 뒤 라이언 긱스를 섀도 스트라이커로 포진시켰고 박지성과 크리스티안 호날두를 좌우에 배치해 빠른 공격을 유도했다.

후반 44분에는 호날두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회심의 오른발슛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왔다.

박지성의 활약이 시작된 것은 호날두와 위치를 바꿔 오른쪽 날개로 옮기면서부터. 박지성은 후반 4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최전방에 있던 플래처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순간 찰튼 수비수 조나단 포춘이 볼을 거둬내려다 빗맞았고 볼을 낚아챈 플래처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강슛으로 네트를 흔들었다.

박지성의 강한 크로스가 수비 실수로 연결돼 결승골의 단초를 제공했다.

박지성은 후반 13분 호날두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재치있게 올려준 크로스를 골문 오른쪽에서 몸을 날리는 발리킥으로 연결했다.

한편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는 평가와 함께 박지성에게 평점 6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일 축구웹사이트 "안정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단 프로필에 소개

독일의 한 축구전문 사이트가 안정환(30)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적설을 언급했다.

독일 웹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www.transfermarkt.de)'는 24일(한국시간)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단에 안정환을 포함한 명단 32명을 소개했다.

이 사이트는 안정환의 프로필에 대해 독일 MSV 뒤스부르크에서 이적료 75만 유로(약 9억2천만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옮겼으며, 시장 가치는 150만 유로라고 평가했다. 포지션은 공격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지금까지 안정환의 이적설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는 안정환 외에 세르히오 아게로, 레오 프랑코(이상 아르헨티나), 루이스 페레아(콜롬비아), 마테야 케즈만(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 4명의 비 유럽연합(EU)선수를 팀 명단에 포함시켰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비EU선수의 팀당 보유 한도는 3명이다.

따라서 안정환이 4개월을 쉰 뒤 올 겨울 이적 기간에 프리메라리가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